

안녕하세요

짬짬이 마스크 전도와 심방, 일대일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계속 되는 장마 가운데도

조금씩 건축이 되고 있어요

지붕이 다 굳어서 받쳤던 나무를 떼고 대문 기둥을 마무리 했고

이젠 건물 안 밖 미장 하고 화장실 내부 공사와

물배관 전기연결 아직도 할 일이 많네요 ^^

한달간 건축을 쉬고 코로나가 극성인 멕시코 시티에 비자연장때문에 가요.

비자만료와 격리때문에 아버지가 소천 하셨는데도 못 갔네요..

모든 일들을 주께 의지하고 사역지를 잠시 떠납니다.

기도해주세요

- 멕시코 김리아 선교사 -

